

강진청자, 스타벅스와 손잡고 세계로 뻗어나간다

강진군, 스타벅스와 3년 여 협의 광복절 청자상품 출시 “강진청자 우수성·아름다움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이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광복 77주년을 맞아 제작한 강진청자 상품을 8월 15일부터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고려시대에 최고 품질의 청자를 제작한 청자요지가 200여 개소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려청자 생산지이다. 강진군은 지난 2020년 말부터 고려청자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스타벅스에 제안했고, 지속적인 협의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상품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강진청자 상품은 청자 티컵과 청자 트레이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스타벅스에서 고려청자의 디자인을 반영해 강진청자와 어울리도록 제작한 스타벅스 텀블러도 함께 선보인다. 청자 티컵과 텀블러는 각각 33,000원에, 청자 트레이는 28,000원에 판매된다.

고려청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맑은 투명한

한 유약이다. 강진청자 상품 역시 유약의 두께에 따라 색이 짙고 얼어지는 고려청자의 특징을 잘 살려냈으며, 컵 뚜껑과 트레이 손잡이는 금으로 장식했다. 특히 청자 티컵은 스타벅스 로고인 사이렌(Siren)과 고려청자의 연꽃 모티프의 조화가 아름답다.

강진청자 상품은 스타벅스가 특정 지역과 협업해 출시하는 첫 지역상생 상품이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과 스타벅스 앱 gift 배송하기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고려청자 문화유산의 가치는 물론 현재 강진청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강진군의 지역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로서, 앞으로도 강진군의 문화유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청자 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스타벅스는 2009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재단이 협약을 맺은 이래로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에 맞춰 무궁화,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한 상품을 소개해 왔

다. 이번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강진청자 상품의 수익금 중 일부는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으로 조성해 우리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추석대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1개월간 집중 소독·홍보기간 운영

해남군은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선제적 차단 방역대책에 나선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은 2019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경기, 충북을 지나 경북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지속해서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지역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 연휴 전 한달간 집중 소독·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양돈농장과 농장주변을 촘촘히 소독하고, 귀성객의 양돈농장 방문 자제 및 농장 관계자의 입산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오염원 유입을 방지한다.

추석 연휴 전후 9월 8일과 13일은 양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양돈농장과 시설 내·외부, 출입구 및 출입차량 등을 집중 소독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와 함께 방역시설 미흡농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모돈사 방역관리 방안과 발생농장의 미흡사례와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농장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가축질병대체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기간에도 ASF 의심축 신고 접수,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 및 방역 추진상황 일일 점검과 확인을 통해 상황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완도 고금면 강상목 씨, 전남도 유기농 명인 선정

완도군은 고금면에서 15년째 유기 농업을 실천하며 유자 재배를 하고 있는 강상목 씨가 2022 전남도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는 현장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농법을 정립하고 친환경 농업에 기여한 농가를 선정, 유기농 명인들의 명예 고취를 위해 지정서를 전달하고 농가에 현판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강상목 명인은 지난 2008년 완도군으로 귀농하여 2009년도에 무농약 인증을 취득하고 자갈오일과 유향, 황도 등 원재료를 이용해 살충·살균 효과를 극대화했다.

어유와 해조류를 이용한 아미노산 액비 등 영양제를 살포해 유자 수확량도 40% 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는 등 유기농 유자 재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직접 유자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유자쥬스, 유자칩 등 유자 가공 상품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결과 총 6종의 특허를 취득했다.

강상목 명인은 “앞으로 유기농 유자 재배 선도 농장으로서 유자 재배 농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등 고품질 유자 생산과 완도 유자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으로 완도군 유자산업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며, 완도 유자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성을 얻을 때까지 유자 산업화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새마을회, 탄소중립 실천 환경 교육 실시

장흥군새마을회(회장 김일진) 유치면(협의회장 김달중, 부녀회장 현화자)는 11일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장흥군 하천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치면 복지회관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환경에 대한 이념과 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질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비점오염원 정의와 저감 방법을 알아보았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과 탄소흡수원이 되는 그린카본, 블루카본에 대해서는 밭도 있게 교육하였다.

교육 후 유치면 새마을회원들은 지역사회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원동, 신평마을의 도로변의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탄소중립실천 15가지 수칙도 함께 실천하기를 결의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관광 발전 협약

철도 연계 관광상품 기획 등 관광 마케팅 분야 협력 위한 업무협약



진도군이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진도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관광 분야 상호협력을 통한

진도=조상용기자

철도여행과 진도지역 관광 활성화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김희수 진도군수와 이민철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부터 ▲관광 홍보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마케팅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과 부경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박-철도 연계 관광상품 기획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KTX는 연간 9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다”며 “진도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빼어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